

1-24. 논에 설치한 유아등에 채집되는 멸구류의 종류와 종 구성

김황용, 엄기백, 박창규, 우건석¹

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농업해충과
¹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

우리나라는 벼 해충을 예찰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50개소에 유아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. 그 중에 예찰 대상이 되는 멸구는 벼멸구, 흰등멸구, 애멸구 3종이지만, 그 이외에도 다양한 멸구들이 함께 채집되어 동정작업에 혼란을 일으키고 예찰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0년과 2001년 두 해 동안 전국 47개 예찰소(2000년 37개소, 2001년 39개소)에서 채집된 멸구 십만여점을 동정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.

2000년과 2001년 두 해 모두 벼멸구의 비례량이 극히 적었으며, 2001년에는 흰등멸구의 비례량 또한 적었다. 2000년에는 흰등멸구의 비율이 49% 정도로 높았지만, 2001년에는 20% 미만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. 그 결과 다른 종들의 비율은 2001년에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, 특히 애멸구는 2000년에는 10% 남짓에서 2001년에는 23%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. 그러나, 그밖에는 2000년과 2001년에 채집된 멸구의 종류와 종구성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10%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이는 종은 흰등멸구, 애멸구, 이삭멸구(겨풀멸구), 어리흰등멸구 4종이었으며, 1~10%의 빈도를 보이는 종은 일본멸구, 벼멸구붙이, 반야월멸구, 북방멸구, *Euides basilinea* (국내 미기록), 들판멸구, 불까만멸구 7종이었다. 그리고, 이상 11종이 전체 채집 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해 모두 98% 이상이었다. 그 외에 전체의 0.1% 이상을 차지하는 종으로는 풀멸구, 황백멸구, 등줄멸구, 무주멸구, 대멸구, 벼멸구, 미동정 1종(국내 미기록)이 있었다. 드물게 남방멸구, 연해주멸구, 운계멸구, 애갈멸구, 야쓰마쓰멸구, 해동멸구, 피멸구 등이 채집되었지만, 이들을 모두 합해도 전체의 약 0.1%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.

흰등멸구는 2000년 밀양, 포항, 안동, 고흥에서 채집량이 많았으며, 애멸구는 2000년 밀양, 2001년 김제, 고성에서 채집량이 많았다. 한편, 이삭멸구(겨풀멸구)와 벼멸구붙이는 서산에서, 일본멸구는 횡성에서, 불까만멸구는 합천에서 유난히 채집량이 많았다.